

새마을 기술봉사단 「경기도단」

과학기술 이식 시범마을 조성사례

25% 소득 증대

경기도 회성군 태안면 영통리

기술지도 내용 및 방법

새마을 운동은 外的인 농촌의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안길을 넓히는 농촌근대화의 환경조성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농촌과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인 격차를 최소한 줄여서 살기 좋은 내교장을 만드는 농촌진흥과 진흥을 꾀하는 민족적인 정신혁명인 것이다. 허울만 갖추었다고 해서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며 농민의 주머니가 두툼해져야 얼굴빛이 좋아지고 윤기가 나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별표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 영통리는 경지면적이 협소하여 주곡중심 농업만으로는 81년도 당소득 245만원의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경기도 새마을 기술봉사단에서는 채소와 과수의 주산지조성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이식전파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첫째 사업으로 신품종 완두재배를 권장하였다. 완두는 오래전 부터 재배되어온 채소작물인데 이는 저온성작물로서 콩과작물 중에서도 추위에 가장 강하여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 발아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18°C이며 최저 발아온도는 1~2°C이며 서늘한 조건하에서 성숙할 때 비교적 수량이 많고 품질이 좋다. 그러므로 경기도 지방에선 재배하기가 유리한 품종이며 특히 답전작물로서 토지이용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품종이므로 완두품종 재배법 재배상의 유의점을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하였다.

둘째번의 사업으로는 오이, 상추, 토마토, 배추의 시설원예를 중점으론 지도를 하였다.

이곳 영통리는 호당경지면적이 영세하고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고 소득도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비록 시설원예가 단위면적당 생산비가 많이 들지만 수익성이 높으며 농한기의 유희노동력과 토지의 집약이용에 유리하며 앞으로 한국의 영양개선 식생활개선의 추세를 비추어볼 때 아주 유리한 사업이다.

시설원예의 기술지도는 시설의 준비 및 설치 육묘자재 및 육묘법 하우스의 보온, 시설원예의 토양관리와 시비, 하우스내 생리장해의 원인과 대책 비닐하우스의 물관리, 시설원예의 경영 등을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특히 지력증진과 작부체계개선 병충해방제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다.

세번째로 중점을 둔 분야는 왜성사과 재배였다. 사과는 비교적 냉랭한 곳에서 잘되는 온대 북부과수이며 비교적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넓으므로 배수만 잘 되는 토양이면 어떤 토질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품종으로는 15년후에나 성과기에 들어가므로 너무 오랫동안 수입없이 돈만 들어 간다. 그러나 왜성사과는 결실이 3-4년 때부터 시작되고 7-8년이면 성과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기에 다수확이 가능하게 된다. 이리하여 왜성사과나무에 대한 지도를 왜성사과나무의 종류, 특성, 왜성대목 번식법, 재배법을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다음번에는 축산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들수 있겠다. 현재 사료가격의 불안정문제가 있긴 하나 국민소득이 향상함에 따라 축산물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육류의 소비량도 비례적으로 더욱 높아지며 부근의 산이 초지조성에 유리하므로 유망한 사업이다.

이런 견지로 한우사양과 양돈을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하였다. 한우사양에서는 특히 비육유

기술이식 시범마을

마을 현황

가 구 수			인 구 수			농 경 <ha>				마을품격 (기초, 자조, 자립)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논	밭	임야	계	74년도	75년도	76년도
52	17	69호	203	189	392명	34	24	75	133	기초	자조	자립

공 동 이 용 시 설				농 기 구 · 보 유 현 황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구판장	마을급고	트랙타	경운기	분무기	탈곡기
1	1	1	1		4	15	

형(육성비육 큰 소 장기비육 큰소 단기비육)과 비육용 소의 구입과 판매 사료급여 우사시설 초지조성 등을 중심으로 지도하였으며 양돈에서는 폐지의 품종 및 특성 번식 비육 자급사료 이용법을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그리고 특수작물에 대한 지도에 관심을 기울여 양송이재배와 인삼재배법을 지도하였다. 양송이는 우리나라의 기온으로 보아 특수 산간고랭지를 제외하고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어느 곳에서도 연 2회의 양송이 재배가 가능하며 또한 유망한 수출품종임을 고려 재배환경과 재배과정 중균을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그리고 인삼은 채종과 개장 재배법(직파숙음법 육묘이식법) 병충해방제를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술이식을 소득작물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왔는데 더 나은 부락발전을 위하여는 소득증대에만 연연할 수 없기에 환경개선방안으로 퇴관건립추진과 생울타리조성 및 부락환경조성을 위한 정월수를 식수하였으며 지하수개발과 상수도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수원개발위치를 선정하였고 양수시험을 해보았으며 야산개발을 위한 현지조사와 부락민과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소득증대사업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농민의 적극적이고도 의욕적인 경영개선참여를 위한 기술지도를 하였다.

농업경영은 단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

이 아니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여 화폐 이익을 얻거나 생산물을 가계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므로 농업경영지도에서는 토지생산성의 증가 생산능력의 향상 생활수준의 향상이란 원칙하에 작목조작방법(경영조직 상고려할점 포함) 농용지의 확대 협동생산을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에너지원의 공급없이 는 잠시도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도시의 연료지원은 초목에서 무연탄 유류가스 전력 등으로 전환되어 왔으나 농촌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에서의 연료자원개발생산과 최대한의 활용을 위한 연료공급체제와 열관리의 과학화로 인한 소비절약은 어느때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도단에서는 농촌연료자원의 확보와 이용을 위한 기술지도를 자급연료생산(임산연료생산, 메탄가스이용, 태양열이용)법과 연료소비절약법(기존주택의 개선 아궁이 개량 온돌구조의 개량 굴뚝개량 벽의 구조개선 천정구조개선 창문구조개선) 영농방식의 개선연료림의 조성등을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기술지도시의 애로

이상에서 보듯이 본 봉사단에서는 채소, 과수 축산, 특수작물, 농업경영등 여러 분야에서 기

술지도를 해왔지만 기술지도상에 있어서 애로점 또한 적지 않았다.

첫째 기술지도를 담당한 분들이 대부분 대학 교수이거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았으며

둘째 사업추진과 문제점 해결에 행정동력원과 자결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부락민들의 신임을받기에는 결정적인 그 무엇이 부족했다.

셋째 농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으며 수용층이 노화 또는 부녀화 되어 가고 있고 보다 능동적이며 민감한 청년층은 거의 타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넷째 농민들은 그 성격이 대부분 보수적이며 보상의 유예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장기적인 사업은 애써 외면하는 형편이다.

다섯째 지도에 대한 반응이나 실제적 행동화에는 때로 자재와 기기와 책자가 준비되어야함에도 재정적인 뒷바침이 부족하여 구두선으로만 언급할 수 밖에 없었다.

여섯째 농민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과거부터 잠재해 내려오는 피해망상의 고질을 못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기술봉사단의 사업은 농민들에게 부담감이나 의무감 그리고 강압감을 주지 않기에 다른 어느 사업보다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성 과

많은 애로사항을 이겨나가며 1년동안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의 효과를 두었다.

그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신품종완두종자 25kg을 15농가에 분배하여 500명에 재배한 결과 250kg의 종자를 생산하여 78년도에는 30농가에

더욱 확대한 규모로 재배할 예정이다.

그리고 육우는 작년 10두에서 12두가 증대된 2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한우는 75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아직 비육우로써 수입원이 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농업노동력으로서의 가치와 비료등에서 기여하고 있다.

돼지는 양돈사업장을 부락내 신수봉씨택에 설치하여 금년도부터의 양돈단지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시설원예는 올해 새로이 5,000평을 증가했는데 평당 3,500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왜성사과는 2,000평에 이식을 하였다.

그리고 양송이재배와 인삼재배는 아직 시작한 농가는 없으나 주민들의 호응도로 보아 곧 시작될 것 같다.

야산개발을 위한 현지조사결과 개발가능면적이 20ha 정도인 것을 확인하고 과수 연료림 초지 조성 등의 개발계획을 주민들과 의논했으며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마을회관건립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60m²의 기초공사를 완료했다. 78년 4월 중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대비 올해의 마을소득현황을 살펴 보면 주곡에서 6,056만원 축산에서 250만원 원예에서 1,062만원 특산물에서 280만원 농외소득에서 940만원을 올려 총수입 8,588만원 호당평균소득 124만 5천원으로 작년도 총 6,870만원 호당평균 99만 6천원과 비교할 때 25%의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

물론 이런 획기적인 소득의 증대는 주민들의 피눈물나는 노력과 관계기관원들의 열성어린 조력에 기인하겠지만 새마을기술봉사단의 기술지도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소 득 분 석 표

(단위 : 만원)

년도	주 곡	축 산	원 예	특산물	농 외	총소득	호당소득	호당소득대
76	5,438	150	390	140	752	6,870	99.6	
77	6,056	250	1,062	280	940	8,588	124.5	25%증가